

감각론과 유물론 사이의 디드로*

이 충 훈

(한양대학교 ERICA)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드로의 초기 핵심 저작 『맹인에 대한 편지』를 분석하여 이 시기 디드로 사상이 다다른 단계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디드로의 이 저작에 대해 내놓는 결론이 대단히 상이한 까닭은 무엇보다 이 저작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성에 있다. 디드로는 인간 지식의 근원이 감각작용에 있다는 로크의 경험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콩디아크의 감각론의 기본원칙을 공유한다. 그러나 시각이론의 문제로 주제를 한정할 경우, 디드로는 몰리뉴, 로크, 버클리가 주장한 서로 다른 감각 사이의 환원불가능성을 의심한다. 이 경우 새로운 시각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시각과 촉각의 상호적인 도움의 가능성과 양상을 밝혀내는 일이 관건이 되며, 이를 위해 디드로는 감각작용의 물질적인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해 시각기관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도외시킬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점에서 디드로는 콩디아크와 라 메트리를 경유하여 로크와 그의 계승자들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을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콩디아크도, 라 메트리도 아직 이 섬세한 문제를 심화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바로 이점이 디드로가 동시대 두 철학자의 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맹인에 대한 편지』가 라 메트리의 유물론과 콩디아크의 감각론 사이를 오가면서 이후 그가 전개할 생물학적 유물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주제어 : 드니 디드로, 몰리뉴의 문제, 유물론, 경험론, 감각론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사업으로 연구됨(HY-2021-G).

I. 서론

대부분의 디드로 연구자들은 1749년의 『맹인에 대한 편지』¹⁾를 저자의 유물론 사상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드러난 작품으로 간주한다. 디드로의 전기 작가 아서 월슨(1985:85-86)은 이 저작을 “디드로 철학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한 발을 더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며, 디드로가 1745년 새프츠베리의 번역으로 문단에 등장했을 때 유신론의 입장을 보였지만 그로부터 “5년 사이에 각각 이신론, 회의주의를 거쳐 1749년이 되면 유물론에 대단히 근접한 입장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디드로 연구자들은 이 관점을 공통적으로 취한다. 로랑 베르시니(1994:135)는 그가 편집한 디드로 『선집』에서 이 저작을 “디드로 개인의 최초의 대작”으로 보면서 “디드로 철학, 즉 무신론과 생물학적 유물론을 알리는 최초의 명백한 선언문”으로 평가한다. 이봉 블라발(2003:155) 역시 『맹인에 대한 편지』의 한 연구에서 이 저작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기존의 지적들을 반박하는 동시에, 디드로가 이 작품을 통해 콩디야크와 볼테르의 입장을 극복하고 결국 “무신론적 유물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자크 프루스트 역시 디드로 초기 작품들에서 이신론으로부터 유물론으로의 이행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의 해석은 위의 입장들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프루스트(1995:285)는 『맹인에 대한 편지』에 유물론 사상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시기까지 “디드로의 유물론은 18세기 초반에 은밀히 활동했던 여러 [유물론] 작가들의 내용과 다른 점이 없다”는 유보사항을 달고 있다. 프루스트(1995:284)에 의하면 1751년에 첫 권이 나오는 『백과사전』까지 디드로에게 유물론은 솔깃한 한 가지 연구 가설이었을뿐이었다. 프루스트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디드로 초기 저작 각각의 작품에 드러난 상이한 이념들이 과연 그의 사상적 변화 과정에 단선적으로 조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시기에 그가 갖고 있던 여러 이념들이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전개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베르시니가 위에서

1)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 Diderot (1978), *Œuvres complètes*, éd. H. Dieckmann, Jacques Proust, Jean Varlootn t. IV, Pars : Hermann 판본을 따르기로 한다.

언급한 그의 생물학적 유물론이 비록 『맹인에 대한 편지』에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보이는 『자연의 해석에 대한 단상들』까지는 아직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이 이념의 최초의 구체적인 성취는 『맹인에 대한 편지』가 출판되고 20년 후에 나온 『달랑베르의 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루스트의 다소 유보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드로 연구자들이 대개 『맹인에 대한 편지』를 초기 디드로의 이신론에서 유물론으로의 전환점이자, 이후 디드로가 평생 견지하게 될 무신론적 유물론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만 우선 기억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많은 디드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맹인에 대한 편지』에 나타난 디드로 유물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레오무르가 프러시아인 안과의사 힐머를 초대하여 집단체 한 선천적 맹인 여성의 백내장 수술 이후 그 결과를 검증하는 자리에 디드로 등의 초대를 불허했다는 불만이 드러나는 짧은 도입부 이후, 디드로가 쥐조의 맹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에피소드, 영국의 선천적 맹인 기하학자 손더슨이 그가 결여한 시각을 촉각의 힘으로 충분히 상쇄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를 넘어섰던 에피소드, 그리고 그 뒤에 지난 세기 말 데카르트 시각이론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졌던 소위 몰리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네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디드로 연구자들은 『맹인에 대한 편지』에서 디드로가 내세웠던 유물론을 이 저작의 두 번째 부분에서, 손더슨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를 위해 불려온 홈즈 목사와의 대화에서 찾는 것으로 그친다. 디드로(1978:48)는 홈즈 목사가 신이 창조한 자연의 경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손더슨이 “목사님은 경이를 말씀하시지만 그 건 목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나 증거가 되지, 저로서는 이해도 가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신을 믿기를 바라신다면 제 손으로 신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목사를 반박했음을 강조한다. 물론 손더슨의 이 발언은 두말할 것 없이 불경한 것이지만 이 발언 자체로만 본다면 동시대 자연의 경이를 비판하는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로운 점은 없다. 문제는 정확히 이 저작의 중심에 위치한 이 작은 에피소드가 『맹인에 대한 편지』 전반이 다루고 있는 시각작용 및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감각작용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디드로는

이 저작에서 데카르트의 『굴절광학』, 로크의 『인간지성론』, 버클리의 『새로운 시각이론에 대한 시론』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이한 시각이론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동시대 볼테르와 콩디아크, 그리고 라 메트리의 논의를 망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 클로드 부르댕(2000:86)이 무신론 기하학자 손더슨의 발언을 “텍스트 중심에서 이행의 부재, 돌연한 단절”로 해석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다.

더욱이 『맹인에 대한 편지』의 첫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당대 저명한 곤충학자이자 자연사가 레오뮴르에 대한 디드로의 경멸 섞인 불만을 기억해보자면 흄스 목사가 주장하는 자연의 경이를 반박하는 손더슨의 발언은 그 자체로 레오뮴르의 옹졸한 처신과, 신학과 과학의 화해를 통해 자연 속에 깃든 신의 손길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의 유사과학에 대한 디드로의 신랄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이 디드로만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맹인에 대한 편지』의 이런 도식적인 해석만으로는 이 저작을 관통하는 시각이론의 문제 및, 그가 마지막 부분에 물리뉴의 문제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물리뉴의 문제는 이전 세기 데카르트주의 시각이론이 근거했던 자연의 설정(*institution de nature*)과 자연 기하학(*géométrie naturelle*)을 부정하고, 지식의 근원으로 오직 감각만을 인정하는 경험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따라서 『맹인에 대한 편지』에는 데카르트주의 시각이론과, 로크의 경험론적 시각이론 및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콩디아크의 감각론(*sensualisme*)적 시각이론이 경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디드로는 이 저작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디드로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이 경합한다. 디드로의 시각이론을 로크에서 콩디아크로 이어지는 경험론과 감각론의 맥락에서 취하는 연구자들은 디드로의 논점을 라 메트리가 유물론의 관점에서 취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시각이론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디드로가 『굴절광학』과 『성찰에 대한 여섯 번째 답변』에서 개진된 데카르트 시각이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연구자들은 디드로가 경험론과 그것의 급진적인 형태인 감각론에 비판적이었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쪽의 결론을 선택하느냐에 『맹인에 대한 편지』의 해석은 극명히 달라질 뿐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저작으로부터 디드로의 유물론에 대한 확신을 끌어낸 해석도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맹인에 대한 편지』 시기 디드로의 철학적 입장을 어느 한 가지 입장으로 고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위 저작에서 나타나는 디드로의 모색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뷔조의 맹인과 데카르트의 맹인

맹인과 농아를 주제로 쓴 디드로의 초기 두 저작 『맹인에 대한 편지』와 『농아에 대한 편지』가 직접적으로 라 메트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라 메트리는 1745년에 필명으로 발표한 『영혼의 자연사 *L'Histoire naturelle de l'âme*』의 마지막 15장에서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와, 농아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친 암만의 교육 방식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디드로가 앞의 두 『편지』들에서 라 메트리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메트리(1987:228)는 이 저작에서 로크와 버클리 의 새로운 시각이론을 뒷받침 해주었던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약삭빠른 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에서 최초의 감각보다 선행하는 판단을 발견하고자 기대”하면서 백내장 수술 후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을 “재촉하여 그가 말해주었던 했던 것을 그에게 말하도록 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확실히 이 내용은 『맹인에 대한 편지』의 도입부와 정확히 공명한다. 한 선천적 맹인의 수술을 주재한 레오뮴르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디드로(1978:17)는 세심한 질문을 통해 이제 막 시력을 회복한 맹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놓치게 되자 “레오뮴르 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나 베일을 벗길 생각”이었음을 아쉬워한다. 결국 디드로에 따르면 레오뮴르 씨는 자신이 선별한 제한된 청중 앞에서 맹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여 “그 실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모노의 맹인 딸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한 디드로(1978:18)는 대신 뷔조의 선천적 맹인을 직접 찾아 그를 관찰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뷔

조의 맹인은 “꽤 양식(良識)을 갖춘 자로 [...] 화학 공부를 좀 했고, 왕립식물원에서 열린 식물학 강의도 썩 관찮게 따라갔던” 인물로 제시된다. 이 설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디드로는 직접 맹인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놀라운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특히 아름다움, 거울, 눈(目)에 대한 답변에 주목한다. 물론 디드로(1978:18)가 뷔조의 맹인이 “허구의 인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맹인의 답변들은 디드로의 창안임이 확실하다.

디드로(1978:18-19)는 먼저 뷔조의 맹인이 ‘질서(l'ordre)’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잠든 밤에 “낮 동안 사람들이 어질렀던 것을 제자리에 놓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맹인은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질서의 친구(ami de l'ordre)”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뒤에 맹인이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대칭을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름다움의 문제로 넘어간다. 맹인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촉각으로 연구했으니, 이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적용하게 된다.” 대칭은 비례와 균형과 더불어 판단의 대상이 질서를 갖추고 있음에 대한 지각으로, 이러한 지각이 미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맹인이상으로 대칭 및 질서라는 미적 속성을 완벽하게 지각할 수 있는 이가 없다. 디드로는 『맹인에 대한 편지』보다 1년 앞서 출판한 『수학논문집』(1748)에 실은 ‘음향학의 일반원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적 경험의 원리를 “관계들의 지각(perception des rapports)”에서 찾고 있다. 디드로(1975:236)는 두 음사이의 관계가 가장 단순할 때 그 음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크고, 반대로 두 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그 즐거움은 줄어드는데 그것은 복잡한 관계들을 지각하는 데 “더 많은 재능과 연습과 주의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물의 가장 단순한 관계인 질서와 대칭을 촉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맹인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미적 경험을 유추의 방법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맹인이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맹인은 당연하게도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미적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는 없는데, 디드로(1978:19)에 따르면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드로는 유추를 통한 맹인의 시각 경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인가? 맹인이 아름다움의 경험을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다른 시각 경험들도 촉각의 도움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디드로(1978:20)는 휘조의 맹인이 내놓은 거울의 정의에 주목한다. 맹인은 거울을 “사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과 적절한 위치에 있다면 그 사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계”로 정의하면서 “그것은 제 손과 같아서 어떤 물체를 느끼려고 제 손을 그 물체 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디드로는 맹인의 거울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즉시 “데카르트가 맹인이었다면 만족했을 정의”라고 거든다. 이 정의에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맹인의 지식은 오직 촉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입체감을 갖지 못한 2차원적인 이미지나 도형은 당연히 시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맹인에게 존재란 ‘만져질 수 있는 것’, 즉 입체감의 시각을 요구한다. 그래서 맹인이 거울은 외부 대상의 이미지를 비추는 시각도구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입체감의 시각 가능성에 있으며, 따라서 맹인은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지만 거울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입체감을 이동시켜주는 시각 장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둘째, 거울에 대한 휘조의 맹인의 부정확한 정의는 아름다움에 대한 맹인의 정의처럼 결국 그에게 시각의 결여는 촉각 및 다른 감각을 통해 완전히 보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두 번째 입장, 즉 감각들의 상호 환원불가능성을 강조할 때 디드로의 맹인은 로크와 버클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한 감각의 결여를 다른 감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경험론의 옹호라고 해석한 마리옹 쇼탱(2010:165)의 주장이다. 다른 한 편, 첫 번째 입장, 즉 한 감각 경험을 유추의 방법을 통해 다른 감각 경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진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사례로 본다면, 이는 데카르트 시각이론의 옹호로 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 경험이 상이할지라도 이들 모두에 대응하는 일종의 공통감각(sensorium commune)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드로가 거울에 대한 맹인의 정의를 두고 “데카르트가 맹인이었다면 만족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통감각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데카르트(1996:83-84)가 『굴절광학』의 첫 번째 담화에 실은 핵심적 주장이며, 바로 이점을 통해 우리는 휘조의 맹인의 에피소드가 결국 시각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끌어들이는 맹인의 비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Il vous est bien sans doute arriué quelque fois, en marchant de nuit sans flambeau, par des lieux vn peu difficiles, qu'il falloit vous ayder d'vn baston pour vous conduire, & vous aués pour lors pû remarquer, que vous sentiés, par l'entremise de ce baston, les diuers objects qui se rencontrent autour de vous, & mesme que vous pouüiés distinguer s'il y auoit des arbres, ou des pierres, ou du sable, ou de l'eau, ou de l'herbe, ou de la boüe, ou quelqu'autre chose de semblable. Il est vray que cete sorte de sentiment est vu peu confuse & obscure, en ceus qui, estant nés aueugles, s'en sont seruis toute leur vie, & vous l'y trouuerés si parfaite & si exacte, qu'on pourroit quasi dire qu'ils voyent des mains, ou que leur baston est l'organe de quelque sixiesme sens, qui leur a esté donné au defaut de la veüe.(인용자의 강조)

[...] 여러분은 분명 간혹 햇불 없이 밤길을 걷다가 다소 험한 장소를 거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팡이를 매개로 여러분 주위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대상을 느꼈으며, 심지어 나무, 돌, 모래, 물, 풀, 진흙 및 어떤 비슷한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음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런 유의 감각이 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지팡이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유의 감각을 고려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감각을 대단히 완벽하고 대단히 정확하게 느끼게 되어 '그들은 손으로 본다'거나 지팡이가 그들의 시각의 결함을 메워주었던 육감의 감각기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선천적 맹인이 두 개의 지팡이를 교차시켜 마주치는 외부의 대상들을 더듬는 행동을 통해 자기 앞의 대상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촉지하고, 이 경험으로 획득한 지식을 통해 그 대상들을 피할 것인지 그대로 지나갈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촉각을 통해 일시적으로든 항구적으로든 사용이 제한된 시각작용이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베로니크 르 뤼(2000:31)에 따르면 여기서 데카르트가 언급하는 '지팡이'는 "태양에서 우리에게까지 순식간에 전파되는 빛의 작용"의 비유이다. 지팡이

하나가 대상에 접촉하면서 발생시킨 자극이 그가 함께 들고 있는 다른 지팡이로 이전되므로, 서로 교차하여 외부 대상을 촉지하고 그 자극을 지각하는 두 지팡이는 여전히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전제한다. 데카르트는 빛을 매개로 외부 대상이 우리 눈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망막에 2차원적으로 이미지를 투사하는 과정을 교차된 두 개의 지팡이의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맹인이 든 지팡이는 외부에서 만나는 대상이, 공기 혹은 투명한 물질을 가로질러 전파되는 빛을 매개로 감각기관에 전달되어 지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확한 비유이다. 그가 단지 어둠 때문이든 시각기관의 결여 때문이든 외부 대상의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없지만, 대상(시각적 자극의 대상), 빛(자극의 전달), 눈(자극의 수용)이라는 기본 요소들은 그대로 시각경험의 과정을 구조적인 방식으로 고스란히 대체하는 도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 선천적 맹인들이 ‘손으로 본다(ils voient des mains)’는 데카르트의 지적은 단순한 비유로 축소될 수 없다. 신체와 영혼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데카르트는 시각작용의 두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외부 대상의 이미지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의 망막에 맺힐 때, 이 시각작용은 완전히 기계적인 것으로 시각기관은 그 대상의 이미지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실제 대상의 입체적인 이미지는 공통점이 없다. 데카르트는 시각기관에 들어온 대상의 이미지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감각기관이 아니라 영혼에 부여한다. 요컨대 망막에 그려진 입체감을 상실한 평면적인 이미지는 지각 주체의 인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지식의 대상이 된다. 파올로 퀴틸리(2001:212)는 결국 데카르트가 이해하는 시각작용에는 외부 대상의 이미지가 동공을 통해 망막에 수용되도록 하는 물질적인 눈(目) 외에도, 이 이미지를 알아차리고(*apercevoir*), 그 이미지를 판단하여 재구성하게 되는 “두뇌 속의 [...]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에게 시각작용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두 가지 과정의 결합을 전제한다. 또한 이렇게 외부 대상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신체적인 시각작용은 망막에 투사된 이미지의 기계적인 자극에 불과하므로 결국 우리는 빛과 시각기관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 단계의 시각작용에서 외부 대상을 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본다’는 행위는 신체의 감각기관에 투사된 이미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렇게 획득된 감각정보가 두뇌에서 해석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인간이 대상과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는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을 관습적인 설정이라고 한다면, 데카르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 혹은 신이 우리의 두뇌와, 그 속에 자리를 둔 영혼이 외부 대상을 일종의 기호의 교환과 해독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고 보며, 이를 가리켜 자연의 설정(institution naturelle)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작용에 국한할 때 데카르트의 입장은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정보가 두뇌에서 해석되기 전까지는 모두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촉각을 통해 외부 대상의 존재유무 및 그것의 속성을 판단하는 맹인들은 눈이라는 감각기관 대신 기하학적 과정을 촉각으로 대체하는 손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시각작용과 촉각작용은 모두 대상과 감각기관 사이에 감각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들어 서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대상과 시각기관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 때 시각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과 촉각기관 사이에도 역시 다른 대상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드로(1978:21)가 푸조외의 맹인에게 ‘눈(目)’의 정의를 요구했을 때 맹인이 “내 손에 들린 지팡이가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공기가 내게끔 하는 감각기관”이라고 답했다면 이는 정확히 데카르트(1996:84)가 『굴절광학』에서 빛을 “광원이라고 부르는 물체들에서라면 그저 공기 및, 다른 투명한 물체들을 매개로 우리의 눈을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신속하고 대단히 강렬한 어떤 운동이나 작용”으로 정의했던 시각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Ⅲ. 데카르트 시각작용 이론에 대한 경험론과 감각론의 반박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앞서 말했듯이 데카르트는 본다는 행위를 망막에 맺힌 외부 대상의 이미지의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두뇌에서 자연기하학이 작용하여 대상의 감각작용을 판단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전자가 신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감각작용이라면, 후자는 감각작용의 오류를 능동적으로 수정하는 영혼의 작용으로,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대상의 존재를 깨닫고(apercevoir) 그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을 일치시키게 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형이상학의 체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존 로크는 시각기관에서 일어난 감각작용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전제한 데카르트의 자연의 설정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로크(1983:99)는 “아이 [...]에게 가장 먼저 새겨지는 관념들이란 우연히 아이에게 맨 처음 나타나는 감각적인 성질들(les qualités sensibles)”일 뿐이며, 이렇게 받아들인 관념들이 “성인에게서 종종 판단에 따라 변경(alterées par le Jugement)”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로크가 친구 몰리뉴가 동의를 구했던 문제에 답변하는 부분이다. 몰리뉴는 1693년 3월 2일에 로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천적 맹인으로 태어난 한 성인이 촉각으로 정육면체와 구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했을 때 촉각 대신 그가 새로 얻게 된 시각만을 사용하여 이 두 도형을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 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로크(1983:100) 역시 몰리뉴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맹인이 비록 촉각으로는 틀림없이 어느 것이 구체이고 어느 것이 정육면체인지 말할 수 있고, 그가 느끼는 모양들의 차이로 물체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맨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어느 것이 구체이고 어느 것이 정육면체인지 확실할 수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아래가 로크(1983:99)의 시각작용이론이다.

[...] lorsque nous plaçons devant nos yeux un Corps rond d'une couleur uniforme, d'or par exemple, d'albâtre ou de jayet, il est certain que l'idée qui s'imprime dans notre esprit à la vue de ce Globe, représente un cercle plat, diversement ombragé, avec différens degrés de lumière dont nos yeux se trouvent frappés. Mais comme nous sommes accoutumés par l'usage à distinguer quelle sort d'image les Corps convexes produisent ordinairement en nous, & quels changemens arrivent dans la réflexion de la lumière selon la différence des figures sensibles des Corps, nous mettons aussi-tôt, à la place de ce qui nous paroît, la cause même de l'image que nous voyons, & cela en vertu d'un jugement

que la coutume nous a rendu habituel : de sorte que joignant à la vision un jugement que nous confondons avec elle, nous nous formons l'idée d'une figure convexe & d'une couleur uniforme, quoique dans le fond nos yeux ne nous représentent qu'un plain ombrage & coloré diversement, comme il paroît dans la Peinture.

[...] 우리 눈앞에 어떤 단일한 색깔, 예를 들어 금색, 철화석고색 또는 흑옥색을 가진 둥근 구체를 놓았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관념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과 선명함의 정도에 따라 이리저리 음영진 평평한 원의 관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통해 불룩한 물체들이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외양을 만드는지, 그리고 물체들의 감각적 모양들의 차이 때문에 빛의 반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각하는데 일단 익숙해지면, 판단은 그 즉시 습관적으로 물체의 외양을 그것의 원인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리하여 판단은 실제로는 다양한 음영이나 색깔에 불룩한 것을 물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징표로 간주하여 이로부터 그 모양을 수집해내고, 불룩한 모양과 균일한 색깔의 지각을 스스로 형성한다. 이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념은 회화에서 명백하듯이 단지 여러 가지로 색칠된 평면인데도 말이다.

로크 역시 외부대상이 망막에 그려질 때 그것의 입체성을 잃고 2차원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용된 2차원적인 이미지를 3차원적인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은 데카르트의 가설대로 영혼에 이미 내재된 자연의 설정과는 무관하다. 감각기관에 대상이 제시되면 감각기관은 그 대상의 특질들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 전체가 감각작용(sensation)을 구성한다. 그러나 로크는 대상의 인지는 최초의 감각작용에서 즉각적으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감각작용을 통해 영혼에 단순관념들(idées simples)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 요컨대 로크에 따르면 세상에 태어나 시각기관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아이는 외부대상의 실제 이미지를 즉시 볼 수 없고, 단지 평평한 2차원적인 이미지만 간신히 지각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감각작용을 통해서만 대상에 대한 어떤 뚜렷한 관념도 가질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로크는 물리뉴가 자신에게 제기한 문제에 흥미를 갖고 이를 데카르트를 반박하는 근거로 삼는다. 성인이 되어 시력을 회복한 선천적 맹인은 설령 그가 이전에 촉각을 통해 대상의 지식을 이미 가졌더라도 그의 최초의 시각 경험으로는 그 대상의 단

순관념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맹인이 촉각의 방식으로 대상의 지식을 얻었더라도 이 지식은 즉각 시각으로 환원되어 인식되지 못한다. 우리의 지식의 근원을 오직 감각작용에서 찾는 로크로서는 공통감각을 통해 시각의 감각작용을 촉각의 감각작용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유추 및 환원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로크에 따르면 오감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작용들은 각기 질적으로 다른 지식을 제공하며, 그러므로 그는 각각의 감각으로부터 온 지식은 다른 감각작용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몰리뉴와 로크의 입장은 클로인의 주교 버클리에 의해 한층 구체화된다. 데카르트 및 데카르트주의자들과 더욱 확실한 거리를 취하는 버클리(1895:30)는 “각각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게 된 관념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며 별개임이 확실”하다고 단언한다. 다만 “그 관념들이 끊임없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을 관찰했으므로 이를 별개가 아닌 동일한 것처럼 말하게 된 것”일뿐이다. 그리고 버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스승인 로크가 인정한 시각을 통한 “공간, 모양, 운동 관념의 습득”의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버클리(1895:91)는 “공간이나 거리는 [...] 시각 대상이 아니”며, 순수한 지각 대상은 오직 “여러 색조와 편차를 지닌 빛과 색깔”뿐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 몰리뉴의 문제를 다시 끌어온다. 버클리(1895:90)에 따르면 선천적 맹인이 “촉각으로 지각한 네모난 면이 시각으로 지각한 네모난 면과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면 [그 맹인은] 네모난 면을 보자마자 그것을 확실히 알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던 한 관념을 새로운 입구를 통해서 단지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천적 맹인은 처음 볼 때 그가 촉각 관념에 항상 붙여온 이름으로 자신이 본 것을 명명하지 않을 것”이며, “정육면체, 구, 탁자는 그가 촉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에 적용됨을 알았던 단어들이지만, 그는 그 단어들이 전혀 촉각적이지 않은 사물에 적용된다는 것은 결코 알지 못했으므로 [...] 시각관념은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 거기에 덧붙여진 이름이 전혀 없는 새로운 지각”일 것이다. 버클리(1895:91)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맹인이] 보는 어떤 것도 물체와 거리 관념, 또는 일반적으로 그가 이미 알았던 어떤 것의 관념을 그의 생각에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크와 버클리가 결국 지난 세기 데카르트 시각이론의 오류를 수

정하고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 영국 경험론자들은 데카르트의 체계에서 본유관념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지식의 기원은 오직 감각 작용에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말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데카르트는 ‘본다(voir)’는 행위를 그저 망막에 맺힌 이차원적 이미지가 단순한 경로를 거쳐 우리 두뇌에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망막에 수용된 이미지가 신경을 거쳐 두뇌까지 운반될 때 그 이미지는 대상 자체와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생각은 대상의 왜곡과 착시가 자연이 마련한 장치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이로써 두뇌는 외부의 대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로크와 버클리는 데카르트의 자연의 설정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본유관념으로 비판하면서 형이상학의 체계에서 몰아내고, 지식의 유일한 기원이 감각작용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영혼의 작용과정에서 어떻게 주체가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들은 감각기관이 시각과정에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외부 대상의 객관적인 지각, 즉 관념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데카르트의 자연의 설정 개념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 과정의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판단이 일어나는지의 문제는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오히려 로크와 버클리는 데카르트 시각작용 이론을 구성하는 반쪽인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감각 자극의 전달과정을 생략하고 무시함으로써, 시각작용의 문제를 순전히 영혼의 작용으로 환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로크와 버클리의 비판적 계승자인 콩디아크는 그의 첫 저작 『인간지식기원론』의 1부 마지막 부분을 고스란히 몰리뉴의 문제에 할애하여 이들 영국 형이상학자들의 논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콩디아크(1973:182)는 이 부분을 “시각 현상을 설명할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데 이를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고 가정”한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앞서 언급한 로크와 버클리의 시각이론에 대한 반박이다. 먼저 콩디아크(1973:182)는 몰리뉴의 문제에 대한 로크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시각을 회복한 선천적 맹인이 처음으로 물체를 보게 되었다면 “빛의 선명함의 정도에 따라 이리저리 음영진 평평한 원의 관념”밖에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콩디아크(1973:183)에 따르면 “[로크가] 우리가 볼룩한 형상의 구체를 볼 때 촉각의 경험을 통해 이

형상의 관념을 얻게 되고,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 이미지의 관계와는 다르게 그 형상을 볼 록하다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진다”고 말할 때 “이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로크는 여기서 “판단과 시각작용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볼 때는 이 방식으로 보면서 판단할 때는 저 방식으로 판단”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콩디야크는 데카르트 시각이론의 약점을 극복하기는커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연히 이루어지는 시각적 판단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로크와 버클리를 논박한다. 다시 말해서 로크와 버클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을 실제와는 다르게 수용하지만 영혼은 이를 뚜렷이 알아차릴 수 없고, 그 결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 교정하여 판단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모든 지식의 근원을 감각작용에서 찾는 경험론의 근본 입장과 모순된다. 그러면서 콩디야크(1973:183)는 부조(浮彫)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Je vois un bas relief, je sais, à n'en pas douter, qu'il est peint sur une surface plate ; je l'ai touché : cependant cette connoissance, l'expérience réitérée, et tous les jugements que je puis faire, n'empêchent point que je ne voie des figures convexes. Pourquoi cette apparence contitue-t-elle? Pourquoi un jugement qui a la vertu de me faire voir les choses tout autrement qu'elles ne sont dans l'idée que m'en donnent mes sensations, n'auroit-il pas la vertu de me les faire voir conformes à cette idée?

내가 부조를 본다고 하자. 나는 두말할 것 없이 부조란 평평한 표면에 그려진 것임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반복된 경험을 해보고 내가 내릴 수 있는 모든 판단에도 나는 볼록한 형상을 보는 것이다. 왜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까? 사물들이 내 감각으로 얻게 되는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게 보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이 판단에는 그 사물들과 관념을 일치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부조가 전혀 입체적이지 않고, 그저 평면에 그려진 그림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조의 그림은 우리에게 여전히 입체적으

로 보인다. 설령 그 부조에 손을 대어보고 그것이 평면이지만 단지 입체적으로 보일 뿐임을 알게 되더라도 그 부조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가졌던 부조의 입체성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콩디아크는 이 문제를 지각과 의식(conscience)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감각작용의 과정에서 우선 이차원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각된 대상은 로크가 미리 전제했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판단을 경유하게 되는데, 앞에 인용한 부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 판단 이후에 로크는 우리의 영혼이 더는 부조의 입체성을 지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조가 평평한 표면에 그런 그림임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그것의 입체성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로크가 말하는 지각과는 다른 어떤 영혼의 작용을 가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콩디아크는 의식으로 보는 것이다. 콩디아크의 의식과 로크의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면, 후자가 일단 판단 행위가 이루어진 후 영혼의 작용이 더 이상 감각 대상을 변형시킬 수 없다는 것임에 반해, 전자의 경우 의식은 항상 대상의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님에도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외부 대상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차이에서이다.

그런데 콩디아크의 이러한 추론을 살펴보자면 일견, 앞서 말한 데카르트의 ‘두 개의 눈’의 가설, 즉 하나는 기계적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력을 갖고 우리 지식을 구성하는 복수의 눈의 가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로크와 버클리는 데카르트가 가정한 두 개의 눈을 통한 이중적이고 순차적인 시각과정을 하나로 축소했다는 점에서 옳았다. 그들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열리자마자 외부 대상을 실제 모습 그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처음에 이 시각기관은 그 대상의 상이한 거리, 상이한 크기, 상이한 위치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가, 수없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 비로소 ‘보는 눈’이 된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성된 ‘보는 눈’은 과연 무엇을 볼 것이며, 이에 반해 시각작용에 익숙해지기 전의 ‘눈’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로크와 버클리는 시각 경험과 촉각 경험은 서로 이질적이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력을 되찾은 맹인은 촉각으로 얻었던 지식을 즉각 시각으로 번역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거리, 크기, 위치와 같은

지각은 순전히 촉각에서 온 것일 뿐일까? 콩디아크는 로크와 버클리를 따라 상이한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작용의 이질성 및 환원불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감각들 간의 상호 도움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촉각의 감각작용으로부터 얻은 지각과 시각의 감각작용으로부터 얻은 지각은 서로 전혀 닮지 않았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각의 지각은 마치 지시대상과 아무런 유사성도, 공통점도 갖지 못한 기호(signe)의 방식으로 상호적으로 전달되고 번역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콩디아크는 로크와 버클리를 경유하여 다시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물리뉴의 문제에 대한 디드로의 답변

이제 물리뉴의 문제를 디드로가 『맹인에 대한 편지』 후반부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가 이 문제를 앞에 언급한 철학자들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자. 디드로(1978:44)는 손더슨의 『대수학 기초』를 읽고 이를 높이 평가한 뒤, 이 영국 맹인 기하학자가 『기하학의 기초』 같은 책을 쓰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그랬다면 “그 책에는 점, 선, 면, 입체, 각, 선과 면의 교차 등의 정의가 나올 텐데, [디드로가] 확신컨대 손더슨은 그 정의를 내릴 때 대단히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원칙들을 작용했을 것”이다. 디드로에 따르면 손더슨이 그런 작업을 수행했다면, 마치 뷔조의 맹인이 아름다움, 질서, 거울, 눈에 대해 눈이 보이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시각대상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물의 존재와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디드로(1978:44)는 “그 형이상학은 관념론자들(idéalistes)의 형이상학과 대단히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인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관념론자란 “자기 존재와 자기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감각작용만을 의식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은 철학자”로서, “그들의 체계는 인간 정신과 철학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의 체계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이 없음에도 논박하기는 가장 어려운 체계”이다. 여기서 디드로는 대표적인 관념론자로 버클리를

핀는다. 콜라 뒤플로(2003:93)에 따르면 디드로가 버클리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두 원천을 감각작용과 성찰”로 보는 이 관념론자가 “우리는 감각작용으로 우리 자신의 외부로 접근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이 감각작용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주장은 하일루스와 필로누스라는 두 명의 철학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세 개의 대화』 중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의 요약으로, 여기서 버클리(1895:240-241)는 자기 철학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필로누스의 말을 빌려, “정신이 아니라면 관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실체란 없고 [...], 즉각적으로 지각된 대상은 관념이고 [...], 감각적 특질은 즉각적으로 지각된 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회의주의자로 간주하는 하일루스의 논변을 반박하고 결국 그를 설득한다. 디드로가 관념주의의 “체계 이상으로 터무니 없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논박하기란 가장 어려운 체계”라고 비판한다면, 이 체계가 외부 대상의 실재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획득한 모든 관념을 결국 감각작용에 제시된 정보들의 성찰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버클리(1895:167)는 자신이 “순수지성 및, 미덕, 이성, 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순수지성의 정신적인 대상들의 본성”을 통해 “추상적인 관념들을 형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디드로(1978:44)는 버클리 유의 관념론이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외부에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맹인들만이 창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디드로(1978:45)가 이 자리에서 관념론자들의 체계를 비판하고 있다면 단지 버클리의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논외로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한 버클리 체계의 원리가 자신의 친구였던 콩디아크의 첫 번째 저작 『인간지식기원론』에서 제시된 원리와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디드로는 콩디아크(1973:107) 저작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우리는 하늘까지 드높여지든 심연 속까지 내려가든 우리 자신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의 사유뿐”이라는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디드로는 이곳에서 로크의 두 비판적 계승자인 버클리와 콩디아크의 체계가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 상이한 반면, 그들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 원리는 오히려 관념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앙드레 샤라크(2003:18)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콩디아크는 오직 “정신에 실제로 나타나는 관념과 감정들만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디드로는 콩디야크 체계의 이념과, 일견 로크의 입장을 다른 한 쪽으로 극단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념론자 버클리의 그것이 같은 토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논의는 디드로가 『맹인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몰리뉴의 문제의 재해석에 할애한 까닭을 밝혀준다. 감각들 사이의 이질성을 강조했던 몰리뉴, 로크, 버클리, 그리고 버클리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볼테르 등은 성인이 된 선천적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다면 촉각의 도움 없이 그가 이전에 촉각으로 관념을 얻었던 구와 입방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몰리뉴의 문제에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콩디야크는 이 문제에 대한 로크와 버클리의 추론을 비판하면서 조건들을 구체화한다는 한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런 콩디야크의 입장은 데카르트 시각이론의 유물론적 성격을 부각한 라 메트리와 뷔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맹인에 대한 편지』에서 디드로(1978:57)는 이 문제에 대해 “몰리뉴 씨, 로크 씨, 콩디야크 신부와 같은 이들이 이 문제를 다룬 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같은 문제라도 수많은 측면을 갖는 것이니 이분들이 모든 측면을 전부 검토한 것은 아니라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요컨대 여기서 디드로는 몰리뉴의 문제를 단지 긍정이나 부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디드로의 일견 모호한 입장은 연구자들에게 그가 로크와 로크의 계승자들의 체계를 따르는 경험론의 토대에서 있는지, 데카르트 시각이론에서 영혼의 작용을 물질과 영혼의 일원론으로 해소한 라 메트리의 유물론적 입장을 따르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어느 쪽도 누구나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해답을 내리고 있지 못했다고 본다.³⁾ 그 이유는 분명 각자

2) 이에 더해 디드로의 이러한 비판은 클로인의 주교였던 버클리의 신학적 입장과, 역시 자신의 첫 저작 『인간지식기원론』에서 형이상학의 토대를 기독교 변신론에 두었던 콩디야크의 논의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비물질주의(immatérialisme)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주제를 지적한 연구자는 없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전개할 수 없으므로 간단히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3) 『맹인에 대한 편지』를 베이컨을 시초로 로크로 이어지는 초기 디드로의 경험론적 경향의 연속으로 분석하는 연구로는 Colas Duflo, *Diderot, philosophe, op. cit.* ; Marion Chottin, *Voir et juger. op. cit.* ; Marc Parmentier, “Le problème de

디드로의 『맹인에 대한 편지』에 복잡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러 입장들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한 까닭이다. 사실 이 저작에서 디드로(1978:59)는 몰리뉴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La question de l'aveugle-né, prise un peu plus généralement que M. Molyneux ne l'a proposée, en embrasse deux autres que nous allons considérer séparément. On peut demander : 1° si l'aveugle-né verra aussitôt que l'opération de la cataracte sera faite ; 2° dans le cas qu'il voie, s'il verra suffisamment pour discerner les figures ; s'il sera en état de leur appliquer sûrement; en les voyant, les mêmes noms qu'il leur donnait au toucher ; et s'il aura la démonstration que ces noms leur conviennent.

몰리뉴 씨가 제시했던 것보다 선천적 맹인의 문제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취해본다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한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리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 선천적 맹인은 백내장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가? 2. 그가 보게 된다면 형상들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이 볼 수 있는가, 촉각을 통해 붙였던 이름을 눈으로 보면서 확신을 갖고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붙인 이름이 실제로 적합하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는가.

문제의 관건은 몰리뉴가 백내장 수술로 선천적 맹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가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여러 안과의사들이 이 수술을 성공시켰으므로 몰리뉴의 문제의 양상도 당연히 달라진다. 특히 영국의사 체젤든이 집도한 수술의 내용과 경과가 『철학회보』에 발표되면서 이 문제를 자신의 논의에 포함시킨 버클리 이후의 저자들은 몰리뉴의 문제와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가 더는 분리 불가능하다고 보게 된다.

Molyneux de Locke à Diderot”, *Recherches sur Diderot et l'Encyclopédie*, 28, 2000, pp. 13-23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데카르트에서 라 메트리로 이어지는 유물론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연구로는, Paolo Quitili, *op. cit.* ; André Charrk, “Géométrie et métaphysique dans la Lettre sur les aveugles de Diderot”,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art. cit., pp. 43-53 ; Jean-Claude Bourdin, “Le Matérialisme dans la Lettre sur les aveugles”, *Recherches sur Diderot et l'Encyclopédie*, art. cit., pp. 83-96 등을 꼽을 수 있다.

체젤든의 보고에 따르면 그의 맹인은 수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되찾은 시각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크의 지지자들은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가 상이한 감각이 환원불가능하다는 그들의 가설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볼테르(1772:178-179)는 『뉴턴철학의 기초』에서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버클리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 l'opération fut faite, & réussit. Ce jeune homme d'environ quatorze ans vit la lumière pour la première fois. Son expérience confirma tout ce que Locke & Barclay [sic.] avaient si bien prévu. Il ne distingua de long-tems ni grandeur, ni situation, ni figure même. Un objet d'un pouce, mis devant son œil, & qui lui cachait une maison, lui paraissait aussi grand que la maison. Tout ce qu'il voyait lui semblait d'abord être sur ses yeux, & les toucher comme les objets du tact touchent la peau. Il ne pouvait distinguer d'abord ce qu'il avait jugé rond à l'aide de ses mains, d'avec ce qu'il avait jugé angulaire ; ni discerner avec ses yeux, si ce que ses mains avaient senti être en haut ou en bas, étant en effet en-haut ou en-bas. Il était si loin de connaître les grandeurs, qu'après avoir enfin conçu par la vue, que sa maison était plus grande que sa chambre, il ne concevait pas comment la vue pouvait donner cette idée. Ce ne fut qu'au bout de deux mois d'expérience, qu'il put appercevoir que les tableaux représentaient des corps solides. Et lorsqu'après ce long tâtonnement d'un sens nouveau en lui, il eut senti que des corps, & non des surfaces seules, étaient peints dans les tableaux, il y porta la main, & fut étonné de ne point trouver avec ses mains ces corps solides, dont il commençait à appercevoir les représentations. Il demandait quel était le trompeur, du sens du toucher, ou du sens de la vue.

[체젤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4세 정도의 나이였던 이 젊은이가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그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로크와 버클리가 대단히 정확하게 예상했던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크기, 위치는 물론, 형상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1푸스 길이의 물체를 그의 눈앞에 가져가자 그는 그 물체가 자기 앞의 집을 완전히 가려버렸으므로, 그는 그 물체가 집채만큼 크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은 처음에는 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촉각의 대상이 피부에 접촉하듯 눈을 자극했다. 처음에 그는 손을 이용해서 둥글다고 판단했던 것과,

각지다고 판단했던 것을 구분할 수 없었고, 손으로 감각해서 위나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실제로 위나 아래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크기라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으니 눈으로 자기 집이 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 시각을 통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림이 입체의 재현임을 알게 되는데 꼬박 두 달의 경험이 필요했다. 더욱이 자신 안의 새로운 감각으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한 뒤에 그저 표면이 아니라 물체들이 그림에 그려졌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로 손을 가져다 대었는데 그 그림에 재현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입체를 손으로 발견할 수 없었으니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촉각이 속이는 것인지 시각이 속이는 것인지 몰았다.

그러나 버클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라 메트리(1987:228)는 의사의 자기 경험에 비추어 체젤든이 보고한 맹인의 사례를 의심하고 있다. 그는 “동요된 굴절 광학의 기관이 그 원래의 위치를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비로소 처음으로 보게 된 이 사람을 재촉하여 그가 말해줄 만한 좋은 것을 그에게 말하도록 시켰거나” 진실은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을 유물론에 근거하여 수용하고 있는 라 메트리는 수술을 통해 시각을 회복한 선천적 맹인이 ‘바로’ 볼 수 있는가를 몰았던 몰리뉴의 문제를 언급하며,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는 로크와 버클리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크와 버클리가 ‘바로 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이의 근거는 시각과 촉각의 이질성과 환원불가능성 때문이지 생리학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라 메트리의 저작이 나온 지 1년 후에 직후 콩디아크는 『인간지식 기원론』을 출판하여 몰리뉴의 문제와 체젤든의 맹인의 사례를 감각론의 관점에서 다시 다루고 있다. 콩디아크(1973:189)에 따르면 “눈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빛의 작용에 순응하기 위해 대단히 다양하고 신속하게 끊임없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랜 훈련을 거쳐 눈의 탄성력이 더욱 커지고 더욱 용이해지게 된 만큼만 그럴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젊은이의 경우는 이와 같지 않다. 그의 눈은 십사 년 전부터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유지되었으므로 대상들의 작용에 저항했다. 각막은 다른 부분들의 위치에 비해 지나치게 볼록하거나 지나치게 볼록하지 않았다. 수정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빛줄기를 모으는데 계속해서 각막에 못 미치거나 각막

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젊은이는 두 달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라 메트리와 콩디아크는 시력을 회복한 선천적 맹인이 ‘바로 볼 수 있는가’를 묻은 몰리뉴의 문제가 사실 그 자체로 잘못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술 직후 맹인은 당연히 즉각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생리학적으로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디드로(1978:63)가 라 메트리와 콩디아크의 입장을 수용하는 부분이다. “[수술을 마친] 맹인은 눈의 체액이 적절히 배치되고, 각막이 시각작용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볼록한 모양을 갖고, 눈동자가 알맞게 확대되고, 수축하게 되고, 망막섬유가 빛의 작용에 지나치게 민감하지도 지나치게 무감각하지도 않게 되고, 수정체의 작용이라고들 보는 전후 운동에 훈련되고, 근육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신경이 감각작용을 전달하는데 익숙해지고, 안구 전체가 필요한 모든 배치를 갖추게 되고, 안구를 이루는 모든 구성부분들이 그 작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몰리뉴의 문제에 올바르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술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수술 이후의 처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수술을 받은 맹인의 회복 정도와 그의 지적 능력의 수준은 어떠한지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디드로(1978:63)는 이런 상황을 빼놓지 않고 모두 고려한다면 수술 후 맹인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선불리 몰리뉴와 로크의 답변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지식도 제공할 수 없다.

생리학의 문제를 언급한 뒤 디드로가 두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사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문제를 종합하고 있다. 글라우저(1999:399)는 “비록 디드로는 몰리뉴의 문제를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 오히려 이를 다음의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리학적 상태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형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이를 명명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때] 맹인이 객관적인 확실성을 통해 답변하는 것인지, 즉 그의 답변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수술 및 처지가 잘 이

루어져서 선천적 맹인이 시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디드로는 그 다음으로는 맹인이 그의 감각기관에 들어온 형상들을 분별(discernement)하고, 명명(nomination)하고, 그 적합성을 논증(démonstration)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찰해보아야 할 차례라고 본다. 요컨대 맹인이 촉각으로 얻은 구와 입방체, 혹은 원과 정사각형의 지식이 새로 보게 된 눈을 통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촉각으로 얻은 관념과 이제 시각으로 얻은 관념의 동일성을 확보했다면 이 둘은 같은 단어, 혹은 기호로 부르거나 제시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맹인은 촉각으로 얻은 관념과 시각으로 얻은 관념이 동일하고, 이를 같은 단어로 지시할 수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는가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의 경과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지 않듯이, 회복된 시각을 통한 일련의 지식 습득 과정의 조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디드로가 어떤 이유로 『맹인에 대한 편지』에 여러 맹인들의 답변들을 수집하고, 시각작용을 주제로 동시대 여러 형이상학자들의 추론들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먼저 디드로는 이 저작 초반에 레오무르가 주도한 백내장 제거 수술 이후 그 경과의 발표를 듣도록 초대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제시했다. 사실 이들은 체젤든의 맹인처럼 추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의 눈앞에 새로 펼쳐진 시각 대상들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디드로가 직접 질문하기 위해 찾은 뷔조의 맹인이 등장한다. 그는 체젤든의 맹인 및 시모노의 선천적 맹인 딸과는 달리 양식을 갖고,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추론할 능력도 갖추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결여된 감각을 섬세한 촉각을 이용해 상당히 근사(近似)한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맹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설명만을 듣고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아름다움, 거울, 눈과 관련한 추론은 놀라워 보이기는 해도,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갖게 된 다른 감각으로 그에게 결여된 감각이 완전히 보충될 수 없으며, 설령 그가 촉각을 통해 시각적 대상을 추론한다면, 그 역시 자신의 추론이 의심의 여지없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디드로(1978:44)는 여러 형이상학자들과, 특히 관념론자들의 추론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철학을 “맹인들의 철학”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들은 뷔조의 맹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추론의 능력을 갖추었지만 “자기 존

재와, 자기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감각작용만을 의식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외부에 감각작용의 원인이 된 대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철학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누리게 된 새로운 감각을 사용하여 대상을 명명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의 명명이 확실한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마지막은 디드로가 저작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천재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영국의 맹인 기하학자 손더슨의 경우이다. 그는 비록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도형을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없지만, 기하학의 원리로 무장했으므로, 자신의 추론이 정확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디드로가 『맹인에 대한 편지』에 손더슨을 등장시켜야 했던 이유이다. 디드로(1978:67-69)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축약하여 인용해 보겠다.

[...] je distinguerai plusieurs sortes de personnes, sur lesquelles les expériences peuvent se tenter. [...] des personnes grossières, sans éducations, sans connaissances, et non préparées, [...] n'étant habituées à aucune sorte de raisonnement, ne sachant ce que c'est que sensation, idée ; n'étant point en état de comparer les représentations qu'elles ont reçues par le toucher avec celles qui leur viennent par les yeux [...]. Il y a d'autres personnes qui, comparant les figures qu'elles apercevront aux corps avec celles qui faisaient impression sur leurs mains, et appliquant par la pensée leur attouchement sur ces corps qui sont à distance, diront de l'un que c'est un carré, et de l'autre que c'est un cercle, mais sans trop savoir pourquoi [...]. [Le métaphysicien] ne raisonn[er]ait dès l'instant où il commencerait à apercevoir distinctement les objets, comme s'il les avait vus toute sa vie ; et qu'après avoir comparé les idées qui lui viennent par les yeux avec celles qu'il a prises par le toucher, il ne dît, avec la même assurance que vous et moi : « Je serais fort tenté de croire que c'est ce corps que j'ai toujours nommé cercle, et que c'est celui-ci que j'ai toujours appelé carré [...], [à défaut de la conviction sur cette série de nominations] mais je me garderai bien de prononcer que cela est ainsi. [...] Si nous substituons un géomètre au métaphysicien, Saunderson à Locke, il dira comme lui [:] « [...] je leur eusse tracé une

figure, et démontré les propriétés d'une autre ; je leur eusse donné une ligne droite pour un arc de cercle, et un arc de cercle pour une ligne droite. Mais puisqu'ils m'entendaient tous, tous les hommes voient donc les uns comme les autres : je vois donc carré ce qu'ils voyaient carré, et circulaire ce qu'ils voyaient circulaire. Ainsi voilà ce que j'ai toujours nommé carré, et voilà ce que j'ai toujours nommé cercle.

[...] 저는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교양 없는 사람들[은] [...] 어떤 유의 추론도 익숙하지 않으므로 감각작용이 무엇인지, 관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다, 촉각을 통해 머릿속에 가진 내용과 눈을 통해 갖게 된 재현을 비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 다른 이들이라면 물체들에서 본 형상들과 그들 손에 자극을 일으킨 형상들을 비교해 보고, 사유를 통해, 자기와 거리를 둔 이들 물체들에 촉각을 대입하여 둘 중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다른 하나는 원이라고 말하겠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

형이상학자들은 대상들을 뚜렷이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부터 마치 그가 평생 그 대상들을 보아왔기라도 하듯 추론을 할 것이고, 눈으로 얻게 된 관념들과 촉각으로 얻었던 관념들을 비교한 뒤에 부인과 저만큼 확신을 갖고 [이것은 원이고 저것은 정사각형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러한 명명에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 이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다. [형이상학자를 기하학자로, 로크를 손더슨으로 대체하면] [...]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형 하나를 그리고 다른 도형의 속성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현과 호를 직선으로, 직선을 원의 호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내 말을 이해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들이 사각형으로 본 것을 사각형으로 보고 원으로 본 것을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항상 사각형이라고 부른 것이고, 저것이 제가 항상 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글라우저(1999:400)에 따르면 디드로는 감각간의 이질성과 환원불가능성을 확인할 목적이었던 물리뉴와 로크의 문제의식을 생리학적, 형이상학적, 방법론적인 문제로 “의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디드로는 체젤든의 맹인의 문제를 재구성하면서 우선 라 메트리와 콩디아크가 제시한 생리학적 문제를 도입하여 유물론과 감각론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이 우리 지식의 근원

임을 재확인한다. 한편 디드로는 이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 시각작용 이론의 유물론적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문제는 결여되었거나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의 지각과 인식을 방해하는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비단 생리학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 지각 주체의 추론과 지성적 작용의 능력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몰리뉴의 문제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양자택일의 두 결론의 문제로 귀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형이상학자들이 몰리뉴와 로크가 제시하고 답변한 문제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식으로 논쟁한다면, 그들은 인간 지식의 획득 과정을 단순한 방식으로 환원하는 데 그치고 말 것이다. 디드로가 버클리나 콩디아크의 답변을 두고 두 사람 모두 외부 대상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맹인들의 철학”의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디드로는 “부인께서 좋아하시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이전의 철학자들과 달리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을 구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 몰리뉴의 문제는 내 지각과 판단이 타인의 지각과 판단과 일치할 수 있는가, 만일 일치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질문으로 확장된다. 여기가 몰리뉴의 문제 및 『맹인에 대한 편지』의 주제가 단지 선천적 맹인의 경우로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철학적인 문제로 도약하는 부분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내가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고 그렇게 얻은 관념을 어떤 기호로 표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타인이 지각을 통해 얻은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와 어떻게 일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와 타인의 지각 과정이 어떤 근거로 동일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지각과정의 동일성과 기호의 설정과 교환 과정의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디드로는 데카르트 시각작용 이론과 이를 신경을 통한 외부 자극의 전달 과정으로 해석하는 라 메트리의 유물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후자의 경우 디드로는 콩디아크의 감각론이 제시하는 자연적인 기호와 그 기호들의 자발적인 교환 이론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맹인에 대한 편지』에서 디드로는 라 메트리의 유물론과 콩디아크의 감각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 둘의 조화로운 결합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며, 그 역시 이점을 모르지 않았다. 18세기 중반, 라 메트리와 콩디아크는 지식의 획득의 문제

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축소하면서 지식의 다양한 정도와 단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디드로의 초기 핵심 저작 『맹인에 대한 편지』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을 종합해, 이 시기 디드로 사상이 이른 단계를 점검하고자 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디드로의 이 저작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디드로의 저작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성에 있다. 그는 인간 지식의 근원이 감각작용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18세기 철학자들과 같이 로크의 경험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콩디아크의 감각론의 기본원칙을 공유한다. 그러나 시각이론이 문제가 될 경우, 디드로는 몰리뉴가 제시했고, 로크와 버클리가 동의했던 시각과 촉각과 같은 서로 다른 감각 사이의 환원불가능성을 의심한다. 몰리뉴의 문제를 재해석하면서 디드로(1978:62)는 “촉각이 물체와 그 물체를 대상으로 한 재현이 부합한다는 정확한 지식을 눈에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눈이 스스로 익힐 수 없다고, [...] 스스로 경험할 수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로크와 버클리의 시각이론에 반대한다. 이제 디드로에게는 시각과 촉각의 “상호적인 도움”의 양상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 그에게는 더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실험과학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감각작용의 물질적인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디드로가 콩디아크와 라 메트리를 경유하여 다시금 데카르트의 시각이론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그러나 콩디아크도, 라 메트리도 아직 이 미묘한 문제를 심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바로 이점이 디드로가 동시대 두 철학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디드로의 1749년의 저작이 전통적인 유물론의 원칙을 견지하면

서 이를 위해 데카르트와 라 메트리의 기계론적 유물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 앙드레 샤라크(2000:52)의 해석에 동의한다. 디드로의 『맹인에 대한 편지』에 내포된 생물학적 유물론의 맹아가 싹을 틔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20여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 참고문헌

- Bekeley, G. (1895), *Œuvres choisies*, trad. G. Beaulavon et D. Parodi, Paris : Félix Alcan.
- Belaval, Y. (2003), *Études sur Diderot*, Paris : PUF.
- Bourdin, J-C. (1998), *Diderot. Le matérialisme*, Paris : PUF.
- Bourdin, J-C. (2000), “Le matérialisme dans la Lettre sur les aveugles”,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28, 83-96.
- Charles, S. (2003), *Berkeley au siècle des Lumières. Immatérialisme et scepticisme au XVIIIe siècle*, Paris : J. Vrin.
- Charrak, A. (2000), “Géométrie et métaphysique dans la Lettre sur les aveugles de Diderot”,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28, 43-53.
- Charrak, A. (2003), *Empirisme et Métaphysique*, Paris : J. Vrin.
- Chottin, M. (et al.) (2009), *L’aveugle et le philosophe ou comment la cécité donne à penser*, Paris : Publications de la Sorbonne.
- Chottin, M. (2010), *Voir et juger. Le problème de Molyneux et ses enjeux philosophiques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thèse de doctorat déposé à l’université Paris I.
- Descartes, R. (1996), *Œuvres de Descartes*, éd.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t. VI, Paris : J. Vrin.
- Diderot, D. (1975), *Œuvres complètes*, éd. Herbert Dieckmann, Jacques Proust et Jean Varloot, t. II, Paris : Hermann.
- Diderot, D. (1978), *Œuvres complètes*, éd. Herbert Dieckmann, Jacques Proust et Jean Varloot, t. IV, Paris : Hermann.
- Duflo, C. (2003), *Diderot, philosophe*, Paris : Honoré Champion.
- Hamou, Ph. (2002), *Voir et connaître à l’âge classique*, Paris : PUF.
- Glauser, R. (1999), “Diderot et le problème de Molyneux”, *Les Études philosophiques* 3, 383-410.
- Locke, J. (1983), *Essai philosophique concernant l’entendement humain*,

- trad. Pierre Coste, Paris : J. Vrin.
- Mérian, J. B (1984), *Sur le problème de Molyneux*, éd. Francine Markovits, Paris : Flammarion.
- Parmentier, M. (2000), “Le problème de Molyneux de Locke à Diderot”,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28, 13-23.
- Proust, J. (1995), *Diderot et l'Encyclopédie*, Paris : Albin Michel.
- Proust, J. (1997), *Perception et intermodalité. Approches actuelles de la question de Molyneux*, Paris : PUF.
- Ru, V. Le. (2000), “La Lettre sur les aveugles et le bâton de la raison”,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28, 25-41.
- Quintili, P. (2001), *La pensée critique de Diderot. Matérialisme, science et poésie à l'âge de l'Encyclopédie 1742-1782*, Paris : Honoré Champion.
- Quintili, P. (2009), *Matérialisme et Lumières. Philosophies de la vie, autour de Diderot et de quelques autres 1706-1789*, Paris : Honoré Champion.
- Voltaire (1772), *Eléments philosophiques de Newton*, nouvelle édition, Neuchâtel.
- Wilson, A. M. (1985), *Diderot. Sa vie et son œuvre*, trad. Gilles Chahine, Annette Lorenceau, Anne Villelaure, Paris : Robert Laffont.

❖ ABSTRACT

Diderot between materialism and sensualism

LEE Choong Hoon
Univ. Hanyang ERICA

We discuss the real beginning of Diderot's materialism from his first philosophical masterpiece *Letter on the Blind*. Impregnated with Lockean empiricism, Diderot assumes the principle that all human knowledge results from sensation, while he keeps this distance with regard to the English theory of vision.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certain French philosophers began to integrate the principles coming from England into their system, not without being critical of empiricism.

Diderot, at that time, seems to have a great ambition to synthesize the sensational origin of human knowledge and the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conditions for acquiring knowledge in order to compensate for defects that various competing philosophical systems were not able to overcome. Above all, in *The Letter on the Blind*, Diderot again and in his own way proposes Molyneux's problem by virtue of which Locke and Berkeley believed they had overcome the Cartesian theory of vision. According to Diderot, the Lockean theory of vision despises the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dimensions in order to have the object of hastily destroying the Cartesian philosophical system, but this negligence, according to Diderot, risks overturning the principle of empirism, which should necessarily be remedied and reinterpreted by Lametrian materialism and the radicalization of sensualism, both pending at the time of *the Letter on the Blind*.

keywords: Denis Diderot, Molyneux's problem, materialism, empiricism,
sensualism

■ 논문투고일 : 2023. 09. 05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